

광주시 자치경찰위원 추천 인사 선정 논란 커지나

위원 명단·인사 순위·점수표 등 국민의힘, 추천위원 자료 요구

초대 광주시 자치경찰위원 추천 인사 선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 지적(본보 4월12일자 5면·4월 21일자 1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해 주목된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최근 광주시의회가 추천한 자치경찰위원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회 자치경찰 추천위원회 위

원 명단과 4배수로 선정된 인사들의 순위와 명단, 자격 요건, 점수표 등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광주시의회가 공개 모집을 통해 8명의 지원자 중 2배수인 4명을 선발한 뒤 이례적으로 1위를 배제하고, 2위와 4위 인사를 추천한 데 대해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과 4위 순위자와의 관계 여부를 묻는 자료까지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전남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학생일 때 4순위자가 행정학과 교수였는지 여부와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 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한, 시의장과 4순위자가 서로 친·인척

관계 여부인지도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넣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측은 "김 의장이 80년대 초반에 4순위자의 수업을 듣는 등 제자였던 것은 맞지만,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 한 경력은 없고 친·인척 관계도 전혀 아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자치경찰 추천위원을 꾸려 공개 모집을 통해 8명의 지원자 중 4명을 선발한 뒤 2위인 경찰 총경 출신 A씨와 4위인 교수출신 B 씨 등 2명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1위였던 변호사 출신 C씨가 탈락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광주시

의회 내부에선 공개 모집인 만큼 1위를 차지한 C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시의회 김 의장은 시교육감이 변호사 출신을 추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업별 안배를 고려해 C 변호사를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초대 자치경찰 위원장에 김태봉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고, 초대 자치경찰 위원회 위원 7명 추천을 마쳤다. 위원들은 자격 조화 등 검증은 거쳐 오는 10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차 튜닝부품 R&D 지원 참여기업 18일까지 모집

전남도가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3단계)' 참여기업을 오는 1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튜닝부품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4개 기업을 선정해 각각 연 2억원 내외로 2년간 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튜닝부품 수요자와 기술개발에 따른 구매 동인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jn.irpe.or.kr)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www.jeonnam.go.kr)와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jn.irpe.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튜닝부품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부터 총 42개사에 기술개발, 장비 구축, 사업화를 지원했다. 지원 결과 참여기업의 매출 증대 289억원, 일자리 창출 209명, 기업 유지 6건의 실적을 올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수익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튜닝부품 기술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튜닝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담양 금성산성 오토캠핑장 등 전남도, 5월 이달의 관광지 추천

전남도는 6일 "담양 금성산성 오토캠핑장, 영암 국민여가 캠핑장, 해남 오토캠핑장 등 5월 이달의 관광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 북부에 있는 담양 금성산성 오토캠핑장은 알프스 풍경을 연출시키는 캠핑촌이다. 캠핑 장비 준비가 필수여서 캠핑에 익숙한 장비 마니아들에게 적합한 장소다.

해남 땅길오토캠핑장은 장비 준비가 부담스러운 캠핑 초보에게 제격이다. 카라반 18대가 있으며, 내부에는 냉장고, TV, 전기레인지, 침대, 에어컨, 이불 등 집처럼 물품이 준비돼 있다.

월출산 국립공원에 자리한 영암 국민여가캠핑장은 텐트 설치 장소를 골라 예약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사색을 즐기고 밤에는 영암읍 야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도시·건축·선언 이행 매뉴얼 발표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6일 오전 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행을 위한 매뉴얼 발표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수소버스·충전소 보급 확대 나선다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개최

전남도가 6일 '수소버스,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열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지난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소버스 도입과 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를 마련했다.

수소버스·충전소 보급과 관련 22개 시·군 에너지·환경·교통 부서 및 버스 운수업체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 수소산업 정책, 수소버스·충전소 보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 내용 및 충전소 구축 시범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 KOREA)'에서 수소산업 육성 정책, 수소버스 도입·충전소 구축 시범사례 및 공모사업 지

원 현황 등을 설명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수소버스 생산, 보조금 지원 및 보급 방법 등을 소개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저탄소 수소경제사의 조기 달성을 목표로 수소법에 의해 설립됐다. 수소에너지 확산 및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수소버스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수소사회 진입을 위한 필수요소다. 대중교통으로 활용하면 도심 삶의 질 개선이 기대돼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전남도는 우수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활용해 신안 대규모 해상풍력단지(8.2GW)와 연계, 그린수소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주기에 걸친 수소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그린수소산업을 선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첨단산업의 심장 '리튬' 광양서 생산한다

전남도·포스코리튬솔루션 1억 달러 규모 투자협약

전남도가 첨단산업의 심장으로서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리튬생산 기업 포스코리튬솔루션(주)과 1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가 포함된 대규모 투자협약을 맺었다. 현재 리튬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남도는 6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지사와 김경호 광양부시장, 유현호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정창화 포스코 신성장부부장(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포스코리튬솔루션은 미래 신사업 전환으로 100년 기업을 꿈꾸는 포스코와 이차전지 핵심소재 원료인 리튬광산을 보유한 해외 광산업체가 설립할 합작기업(JV)이다. 해외 광산업체의 자본투자(30%)가 확정되면 1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리튬솔루션(주)은 광양 울

촌산업단지에 2023년까지 7600억원을 투자해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260명의 직원을 신규로 고용할 예정이다. 공장이 준공되면 연간 4만3000t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한다. 이는 전기차 100만대 생산이 가능한 규모다.

리튬시장은 이차전지용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 전기차용 리튬수요 급증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 세계 전기차용 리튬수요가 2020년 12만1000t에서 2030년 143만5000t으로 연평균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는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 희귀금속으로 구성되는데 전기차 수요 증가 여파로 올 들어 해당 광물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제연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리튬과 코발트 자급률이 0% 수준일 정도로 배터리 원재료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포스코와 리튬광산을 보유한 해외업체와의 이번 합작투자는 안정적 리튬 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리튬 매출액 5800억원에서 광석수입 비용 2100억원을 제외한 연간 37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서울시와 23일까지 사회적경제 쇼핑물 기획전

전남도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오는 23일까지 서울특별시와 함께 '사회적경제 쇼핑물' 기획전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쇼핑물' 기획전은 양 지자체의 교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쇼핑물인 '녹색 나눔(www.greenanum.co.kr)' 신규 가입 이벤트와 함께 10-15% 할인 쿠폰 제공, 무료 배송서비스를 한다.

서울시는 공무원 내부 행정시스템인 '행정포털'을 통해 '녹색 나눔' 누리집을 홍보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쇼핑물인 '함께 누리(www.hknuri.co.kr)' 누리집에도 배너를 게시해 판매를 돕는다.

이밖에 오는 16일까지 우체국쇼핑물(mall.epost.go.kr)에서 '가정의 달 맞이 사회적경제기업 기획전(전남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도 함께 진행한다.

할인 쿠폰을 통해 10-15%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전남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장정희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며 "'녹색 나눔' 쇼핑물 활성화 및 입점기업 확대를 위해 CI 교체 등 누리집을 새롭게 단장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홍보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